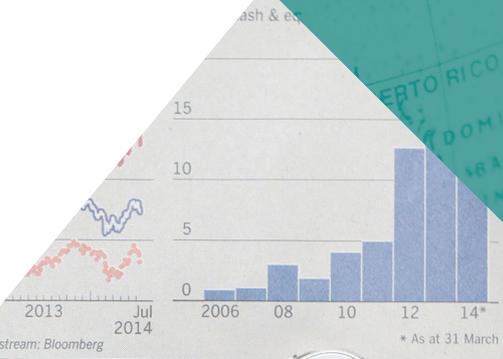


Mar
2019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온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t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and a fourth fact: these
...es trade below book val
...two times Rosneft's in
...and gas reserves (Exxor
...17 times). About \$14bn
...coming due this year, \$1
...next.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
...dollars.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

...the maker of
...Come Dine
...y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
...ion is not the biggest
...JP Morgan estim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 But Lib
...best
...s an owner and c

...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
...Yes,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
...the rest of ITV would cost £7.4bn at
...today'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



Mar
2019

목 차

금리 -----	03
달러/원 환율 -----	05
엔/원 환율 -----	07
유로/원 환율 -----	08
주요 국내경제 지표 -----	09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	09



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금리

2월 동향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 금리방향성이 연동된 가운데, 다소 매파적이었던 연준 스탠스와 한은의 금리하단 제한 가능성 등으로 1.8%초반 흐름 시현

월초, 미국경제지표 호조속 미국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국내 금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 2월 초, 연휴기간 호조를 보인 미 경제지표에 미 국채금리는 상승한 반면, 국고채 금리는 미·중 협상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출발
 - 2월 초 미국채 금리는 제조업지표 및 고용지표의 호조 영향으로 금리 상승 모멘텀 강화
 - 그러나 국고채 금리는 미국채 금리와 연동이 약화된 가운데 미·중 협상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국내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하락 출발

중반 이후,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긍정적 기대로 선화하는 양상

- 2월 중반, 주요국 성장 전망 하향과 미국의 국경분쟁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등이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였으나, 미·중 무역협상의 긍정적 기대가 위험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보험권 흐름 등락 시현
 - 2월 중반, 유로존과 영국, 호주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 이후 주요 관심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선화하여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상쇄함에 따라 국고채금리는 보험권 등락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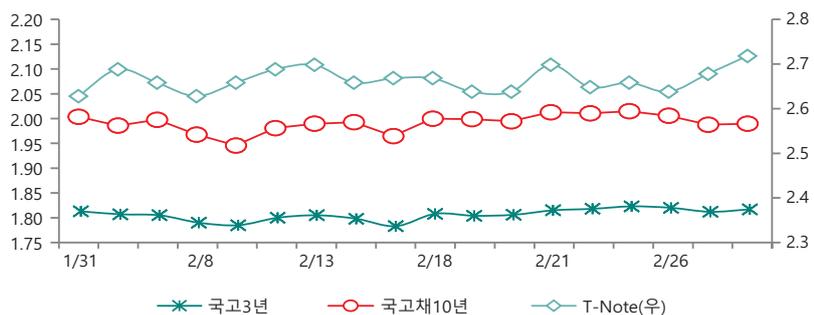
전월 FOMC 의사록이 매파적이었던 인식 속에 한은 총재의 금리하단 제한 가능성 시사 등으로 상승 모멘텀 확대 전환

- 2월 후반, FOMC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평가에 의한 금리변동성 확대와 금통위 금리 동결 이후 한은 총재 스탠스가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 2월 후반, 전월 FOMC 의사록이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평가에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며 국고채금리 상승 전환
 - 여기에 금통위 금리동결 단행 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제한하는 한은 총재 발언에 1.8% 초반에서 하단이 제한되며 상승 모멘텀 확대

2월 평균

국고채(3년): 1.80%
 국고채(10년): 1.99%
 T-Note(10년): 2.67%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3월 전망 연준의 완화적 기조와 국내경제의 성장세 약화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한은 스탠스가 금리하단을 제한할 전망

평균	2019. 1Q ^F	2019. 2Q ^F	2019. 3Q ^F	2019. 4Q ^F
국고채(3년, %)	1.83	1.85	1.88	1.87

- 미국 경기지표의 등락 혼재 가능성에도 타지역 대비 견조함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의 '긴축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미 경기지표가 내수부문과 고용지표 등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에도 유로존 및 타지역 대비 견조세가 이어지는 점이 매파 성향을 지지할 전망
 - 그럼에도 3월 FOMC는 이전과 같이 긴축에 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는 비둘기 스탠스 속에 자산매입 축소 시기 힌트 등으로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며 하반기 긴축을 위한 에너지를 응집할 것으로 예상
- 2월말 글로벌 이벤트 이후 세계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는 다시 미·중 무역협상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 협상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 3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미·중 무역협상과 자동차 관세 부과 이슈가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미·중 무역협상은 3월중에도 소강국면에서 향후 추가협상의 여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차 관세 이슈는 해당국(EU, 일본)과의 갈등 표출로 이어지며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
- 국내경제의 성과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점이 대내적 금리 하락 요인이나 한은 총재의 금리인하 가능성 차단 시사 등이 1.8% 초반에서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2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하락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및 수출 감소세 하락 등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력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미약한 상황
 -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 국고채 금리의 하락 추세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나 한은의 단기 금리인하 가능성 차단 속 글로벌 금융불균형 측면에서의 접근에 따라 1.8% 초반 전후 등락 예상

3월 FOMC는 완화적이겠지만 하반기 긴축을 위한 에너지 응집에 전력할 것으로 예상

전월 후반의 글로벌 이벤트 이후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은 다시 미·중간 무역협상 진행여부에 주목할 전망

3월 국고채(3년) 금리는 1.78%~1.84% 범위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엇갈린 지표의 등락에도 견조세를 보이는 경기상황에 연동된 미국채 금리 흐름 영향 ·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 차단 메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디스 등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의 국내 경제성장 지속 하향

달러/원 환율

2월 동향 미·중 무역분쟁 이슈에 연동된 흐름 속에 다소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북·미 협상 결렬이 악재로 작용하며 상승 전환

월 초, 미국 경기 견조세 속 국내외 경기의 하방 압력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중반, 미·중 무역협상의 낙관적 기대에도 미국의 국경관련 비상사태 선포와 미·중 협상내 환율 명문화 이슈 등으로 1,120원 중반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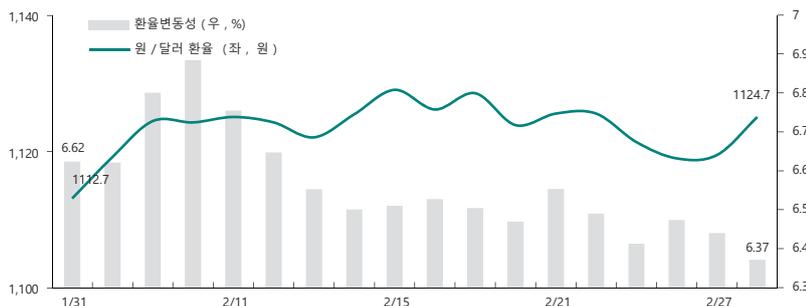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 공개 후 북미 협상의 결렬이 시장 악재로 작용

2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21.7원

2월말 달러/원 환율 : 1,124.7원

- 월 초, 연휴기간 견조함을 보인 미국 경제상황 반영 속 달러강세 출발. 이어 세계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이어지며 1,120원대 중반까지 상승
 - 2월 초, 국내 설연휴 기간 중 미국의 경제지표들(ISM 제조업지수, 고용지표)이 대체로 예상 밖 호조를 보임에 따라 달러 강세 출발
 - 이어, IMF의 글로벌 경기 둔화 경고에 이은 유로존, 영국, 호주 등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영향 속에 국내 경제 지표 부진이 원화 약세를 견인하며 1,120원대 중반까지 상승
- 미·중 무역관련 낙관적 협상 소식에도 미 경기지표 호조, 트럼프 국경분쟁 이슈로 1,120원대 후반 상승 후, 위안화 강세 반영속 1,120원 중반 등락 전환
 - 미·중간 무역관련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관련 비상사태 선포로 재차 달러 강세전환 하였으나 미·중 협상안 내 위안화 안정에 대한 명문화 소식으로 위안화 강세 전환이 반영되며 1,120원 중반 등락
- 2월 후반, 매파적이었던 1월 FOMC 의사록 영향과 미·중 협상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등락하다 북·미 회담 결렬 소식에 급등 마감
 - 2월 후반, 미국의 수입차 관세 관련 불확실성 속에 1월 FOMC 의사록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로 환율은 1,130원대에 근접
 - 이어 낙관적 전망 속 진행된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환율은 전월보다 12.0원 상승한 1,124.7원으로 마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3월 전망 **완화적 연준 스탠스에도 연내 점도표 2회 유지 가능성 속에 무역협상과 국내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상대적 원화약세 예상**

평균	2019. 1Q ^F	2019. 2Q ^F	2019. 3Q ^F	2019. 4Q ^F
달러/원 환율(원)	1,125	1,120	1,135	1,150

- 연준은 3월 FOMC에서 완화적 스탠스를 이어가겠지만, 타 경제권 대비 미국 경제의 견조함이 지속될 경우 현재 점도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은 3월 FOMC에서 금리정책에 대한 인내심 유지와 자산매입 중단 시점 등에 힌트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은 이를 다소 완화적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미국 금융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 점도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달러 강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중 무역협상은 3월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세 이슈가 추가적으로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될 전망
 - 미·중 무역협상이 일부 부문에서 진전 가능성이 엿보이나, 여전히 첨단기술 부문 등 잠재된 불확실성 등으로 추가협상 여지가 상존한 점은 안전자산 선호 요인
 - 여기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쟁점이 EU와 갈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도, 터키와의 관세이슈도 부각되면서 무역분쟁 도미노 현상이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할 전망
- 국내외 잠재적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부각 가능성 속에 국내 경제회복력 약화에 따른 원화약세로 상대적 달러 강세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북미 협상 결과와 서남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
 - 이러한 대내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국내 경기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부각되며 환율은 1,117~1,129원 범위 등락 예상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가 이어지겠지만, 현재의 미국 경기 상황을 반영했을 때, 점도표 2회 유지가 예상

미·중 무역협상 최종 타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속에 자동차 관세 및 기타국과의 무역 갈등 확산 가능성 상존

3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17원~1,129원 전망

상승 요인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기 성장 모멘텀 약화에 따른 상대적 원화 약세 ·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주요국으로 전이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에 이은 연준의 점진적 긴축 스탠스 속 자산 축소 중단 가능성 · 미·중 무역협상 중 위안화 강세 가능성



엔/원 환율

2월 동향 ■ 미중 무역협상 및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 미 연방정부 섣다운 우려 해소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약화되며 달러/엔 상승. 엔/원 환율은 글로벌 투자 심리 회복으로 전반적 하락 시현

엔/원 환율 전월대비 12.1원 하락한 1,010.1원에 마감

- 전반적인 안전자산 선호 약화 속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엔/원 환율 하락 견인하였으나 월 후반 북미 협상 결렬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
 - 월 초,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및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시그널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영향으로 엔/원 환율 하락
 - 월 중반, 미 연방정부 섣다운 방지를 위해 여야간 국경 예산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점도 위험선호를 강화시켜 환율 추가 하락 견인. 구로다 총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연설 또한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
 - 월 후반,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따른 원화 강세 영향으로 엔/원 환율은 1,002원까지 하락하였으나 협상 결렬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

3월 전망 ■ 글로벌 금융시장 내 투자 심리가 위험선호에서 안전자산 선호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달러/엔 환율 하락, 원/엔 환율 상승 전망

달러/엔 상승 후 하락 전망

- 월말로 가면서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주목하며 안전자산인 엔에 대한 수요 확대될 전망
 - 월 초 미중 무역협상의 기한 연장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속 미일 무역협상 우려 및 BOJ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 전망
 - 그러나 월 후반으로 가면서 다소 완화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3월 FOMC (19~20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경계감, 미 자동차 관세 부과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엔화 강세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엔/원 환율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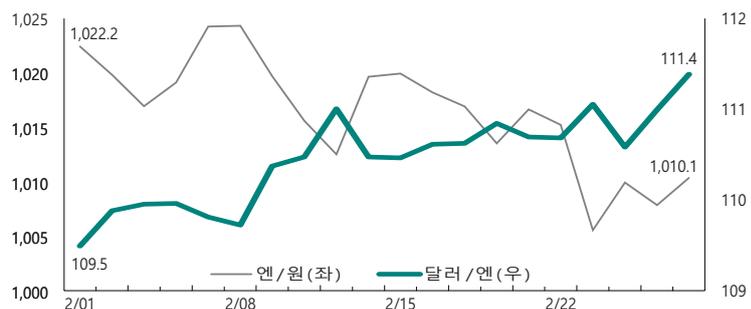
- 엔/원 환율은 원화 약세 전환과 안전자산 선호 재개 가능성으로 상승 예상
 -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원화 약세 전환 속 트럼프-시진핑 간 회담을 앞두고 완화되었던 미중 무역협상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재개될 가능성이 엔/원 환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

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0.5엔

2월 엔/원 평균환율 : 1,016.2원

3월 엔/원 예상 범위 : 1,010원~1,05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2월 동향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 속 성장 전망 하향 조정 등으로 유로/달러 환율은 1.123달러까지 하락 후 반등. 유로/원은 위안화 강세에 동조된 원화 강세 영향이 하락을 견인하였으나 이후 유로 강세전환으로 상승

- 유로/원 환율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약화에 1,265원까지 하락한 이후 유로존 불안 다소 완화되며 제한된 상승 시현
 - 월 초,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속 원화 강세를 견인함에 따라 유로/원 환율 하락
 - 월 중반, 이탈리아 일부 은행의 부실채권 축소 속 유로존 불안 완화되며 유로/원 환율 상승전환
 - 월 후반,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 및 북미 회담 기대감이 유로/원 환율 하락을 견인하였으나 회담 결렬 이후 원화 약세 심화되며 환율 반등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3.2원 하락한 1,275.9원에 마감

3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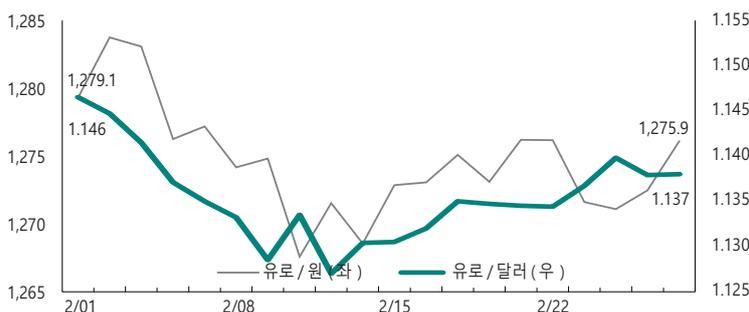
ECB의 유동성 추가 공급 발표 가능성에 유로/달러 및 유로/원 하락 전망. 다만, 유로화 저평가 인식으로 큰 폭 하락은 제한될 전망

- 유로존 경기 부진에 따른 ECB의 추가적 통화 완화정책 시행 가능성으로 유로/달러 하락 전망
 - ECB 회의(3/7)에서의 유동성 추가공급(TLTRO) 재개 발표 가능성이 유로/달러 환율 하락을 견인할 전망. 최근 유로존 경기 부진에 따른 ECB의 유동성 공급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이슈 및 브렉시트 의회 표결과 브렉시트 연기 여부 등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원화 약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 둔화에 따른 유로화 약세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유로/원 환율의 제한적 하락 예상
 - 유로존 경기 둔화에 따른 추가적 유동성 공급 발표 가능성,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으로 유로/원 환율 하락을 전망
 - 다만, 북미 정상회담 실망감 및 국내 경기 부진이 환율 하락 제한 전망

유로/달러 환율의 하락 우위 전망

유로/원 환율 제한적 하락 전망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35달러

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274.5원

3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60원~1,29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항 목	2018년				2019년	
	연간	3/4	4/4	12월	1월	2월
전 산업 생산	1.4	-0.1 [0.5]	2.6 [-0.6]	0.4 [-0.3]	0.6 [0.8]	
제조업	1.2	-0.1 [0.6]	4.6 [-1.4]	1.2 [-0.9]	0.2 [0.5]	
서비스업 생산	2.1	0.8 [0.3]	2.8 [0.4]	1.5 [-0.1]	2.0 [0.9]	
소매판매액	4.2	3.8	2.9	3.0	4.0	
설비투자	-3.7	-13.5	-5.9	-14.9	-16.6	
건건설기성액	-5.2	-9.7	-7.8	-9.1	-11.8	
경기선행지수	-	-	-	98.9	98.5	
실업률 (%)	3.8	3.8	3.4	3.4	4.5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1.3 [-0.3]	0.8 [-0.1]	0.5 [0.4]
경상수지 (억달러)	-	-	-	18,193		
상품수지 (억달러)	-	-	-	65,290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1.3	-5.9	-11.1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1.2	-1.7	-12.6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1,827	1,807	1,799
KOSPI (월말)	-			2,041.0	2,204.9	2,195.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2018.9	2018.10	2018.11	2018.12	2019.1	2019.2
미국 USD	1,109.3	1,139.9	1,120.8	1,115.9	1,112.8	1,124.4
일본 JPY(100)	976.0	1,010.2	987.5	1,016.7	1,021.8	1,010.1
유로 EUR	1,291.3	1,291.1	1,275.8	1,270.1	1,277.1	1,275.9
영국 GBP	1,446.8	1,458.2	1,428.6	1,421.8	1,458.6	1,493.0
중국 CNH	161.1	163.4	161.5	162.4	165.7	167.9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증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증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9.3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한 2월 무역수지(\$1,336M) -수출/수입(-5.8%/-1.7%, YoY) 중 2월 Caixin 제조업 PMI(48.3) 유 2월 Markit 제조업PMI[F](49.2) 독 2월 Markit 제조업PMI[F](47.6) 미 12월 개인소비지수(0.4%) 2월 Markit 제조업PMI(53.7) 2월 ISM 제조업지수(56.6) 2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96.5) Fed's Bostic Remarks at Luncheon at Economic Policy Conference	
3	4	5 豪 RBA	6	7 ECB 통화정책회의	8	9
	유 1월 유로존 PPI (-0.8% MoM, 3% YoY) 미 12월 건설지출(MoM)	호 RBA 기준금리(1.50%) 한 2월 CPI(-0.1% MoM/0.8% YoY) 일 2월 닛케이 PMI 종합/서비스(50.9/51.6) 중 2월 Caixin 서비스PMI(53.6) 2월 Caixin 종합PMI(50.9) 유 2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2.3/51.4) 독 2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5.1/52.7) 미 2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56.2/55.8)	한 2월 외환보유고(\$405.51B) 미 1월 제조업수주[F] 1월 내구재 주문[F] Fed's Williams Speaks on the Economic Outlook, Monetary Policy Fed's Mester Participates in Moderated Discussion 연준 Beige Book	일 1월 선행지수, 동행지수(P) 중 2월 외환보유고(\$3,087.92B) 유 ECB 기준금리(0.00%) 미 4Q 단위노동비용지수[F](0.9%)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F](2.3%) 1월 소비자신용지수(\$16,554B)	한 1월 경상수지(\$4,819.3M) 일 1월 경상수지(₩452.8B) 4Q GDP[F] 중 2월 무역수지(\$39.16B) -수출/수입(9.1%/-1.5% YoY) 독 1월 공장수주(-1.6%, MoM) 미 2월 실업률(4%) 1월 도매재고[F]	중 2월 CPI/PPI(1.7%/0.1%, YoY)
10	11	12	13	14 BOJ 통화정책회의(-15)	15	16
		미 2월 CPI/Core(0%/0.2%, MoM) (1.6%/2.2%, YoY)	일 2월 PPI(0.6% YoY) 1월 3차산업지수(-0.3%, MoM) 유 1월 유로존 산업생산(SA) (-0.9%, MoM) 미 2월 FPI/Core(-0.1%/0.3%, MoM) (2.0%/2.6%, YoY)	독 2월 CP[F] 미 2월 수출/수입물가 (-0.6%/-0.5%, MoM) 1월 기업재고	일 BOJ 기준금리(-0.10%) 한 2월 수출물가지수 (-1% MoM, -1.4% YoY) 수입물가지수(0.1% MoM, 2.5% YoY) 유 2월 CPI(-1% MoM, 1.4% YoY) 미 2월 광공업생산(-0.6%, MoM)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P]	
17	18	19 美 FOMC(~20)	20	21 BOE 통화정책회의	22	23
		한 2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한 2월 PPI(0.2%, YoY) 독 2월 PPI(0.4% MoM, 2.6% YoY) 미 FED 기준금리(2.25~2.50%)	영 BOE 기준금리(0.75%) 유 3월 소비자기대지수 미 3월 필리델피아 연준 경기전망(-4.1) EU 정상회담(~22)	일 2월 CPI(0.2%, YoY) 3월 닛케이 PMI제조업[P] 유 3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독 3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미 3월 Markit 종합, 제조업, 서비스PMI[P] 2월 기준 주택매매(-1.2%, MoM) 2월 월간 재정수지	
24	25	26	27	28 韓 금통위	29	
	독 3월 IFO 기업환경지수(98.5) 미 2월 시카고 연방 국가발등 지수 2월 신규주택매매 3월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독 4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미 2월 내구재주문[P] 3월 리치몬드연방 제조업지수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 보아오 포럼(~29)	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2월 도매재고(F)	한 4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 유 3월 경기기대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미 4Q GDP 연간화(QoQ) 4Q GDP 물가지수 4Q 개인소비 브렉시트 Deadline	미 3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F]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안은 이전치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